

#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

장윤석

누구나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정직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스스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마치 성자같이 정직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선적인 태도에 마음이 닫히고는 합니다.

서로가 정직할 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정직하지 못할 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쉐퍼 선생님이 라브리의 모토로 삼은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사상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앞부분인 “정직한 질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정직에 대하여

### (1) 정직, 공부의 기초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조장희 박사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뇌가 붉게 달아 오른다고 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진 머리가 두뇌 전두엽의 고등 사고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머리는 창의적인 생각과 통찰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컴퓨터의 메인 보드에는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가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에서 정보처리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자세히 보면 장치 위쪽에 선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선풍기가 없다면 CPU의 정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CPU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PU의 회로가 타 버리게 됩니다.

CPU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는 온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두뇌의 온도를 높이면서 우리의 배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해도 얼마 배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http://www.labri.kr)

문제 속에 갇히게 되기 쉽습니다. 슬럼프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직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부생 시절 성악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학문하는 사람의 기초는 “정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작은 여운과 같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진 교수님의 설명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거울같이 맑은 마음으로 학문을 하지 않으면 그 학문은 결국 엉뚱한 일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학문의 참된 이치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부는 실용적 목적으로 승진 또는 출세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한 것과 삶은 전혀 다른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정직하게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이 기복적, 인간 중심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일반 학문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 (2) 정직, 변화의 기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자신의 단점은 꼭꼭 숨기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그 단점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배가 나왔다고 지적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변화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이 변해야 할 변화의 몫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때로는 큰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할 때 아픈 곳을 노출시키지 않고는 절대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픔이 따를지라도 문제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기서 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각종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를 동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핑계를 댑니다.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댄다.”는 말입니다. 결국 핑계를 대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의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

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데도 안 아프다고 하고, 안 아프데도 아프다고 하면, 결국 의사는 오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 (3) 정직, 성장의 기초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9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단점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99가지의 장점은 배제하고 한 가지의 단점만을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는 잘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까지 잘 아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흔히 우리는 고학력자라고 하면 모든 것에 통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분야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나는 깊이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깊이 팔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라브리를 방문한 한 목사님이 신학은 “좁고 깊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땅을 파 보신 적이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계의 섭리만 보더라도 땅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게 파야 합니다. 좁게 파서는 절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라브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폭넓은 관점으로 현대 사회와 철학과 인간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퍼의 사상은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웨퍼 혼자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웨퍼 주변에 그런 눈을 띄워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웨퍼는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주옥같은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는 타고난 인격체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나이와 관계없이 존엄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은 나이와 관계없이 배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스스로를 가꾸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도 정죄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기에 그 사람의 밝은 부분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훨씬 객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

람의 장점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몰랐던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 줄 수 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1974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가장 속기 쉬운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위해 상황을 속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용은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성장을 위한 본질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 (4) 정직, 이해의 기초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편견이 생깁니다. 라브리는 세 가지(학교, 고향, 나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처음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이 설정한 틀에 따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와 같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많은 경우 그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고사성어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정직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직을 통해 서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인격적 의미에서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잘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보가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무촌지간(無寸之間)이라 불리는 부부조차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완벽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시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속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정직하게 아는 것이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 (5) 정직과 욕심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약 4:14)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 큰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망을 갖게 합니다. 높은 위치, 큰 조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욕망 자체를 위해 본질을 희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진로를 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 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본질을 지키는 데 써야 할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 가지를 하려는 욕심보다는 하나를 바르게 실천하는 소박함이 필요합니다. 이 소박함이 바로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자 할 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처럼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따름입니다.

세상이 혼란해 보일수록 한 가지를 바르게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하신 능력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서기 전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를 바르게 실천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 2. 질문에 대하여

### (1) 질문, 배움의 기초

배우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습 부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질문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그 안에 숨어있는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푸른 하늘과 검은 하늘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늘의 색깔이 푸른색인지, 검은색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본다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비가 오는 것, 식탁 위에 식사가 올라오는 것, 편안히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평범한 것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며 배움으로 이르는 문을 열어 줍니다.

### (2) 교회와 질문

한국의 문화 속에서 질문은 종종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라브리가 시작될 즈음, 서양 사람들에게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라브리 후보지로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인경 · 박경옥 간사님은 한국 사람들 역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임을 굳게 믿고 라브리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질문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것과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다른 곳에서 해

결반기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이단을 만나게 되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단을 따라 가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설교자가 스스로의 설교를 비판적(Critical)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No Problem)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설교는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사도적 교훈을 바르게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 신학 교육 전통에서는 같은 본문을 세 명의 설교자가 이어서 설교하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신학자 츠빙글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상호 논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집회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평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일주일 전에 세 명의 설교자에게 같은 본문이 주어집니다. 설교 순서는 설교 당일에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가 45분을 설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자는 각각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교합니다. 두 번째 설교자와 세 번째 설교자는 앞 설교자가 설교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설교자는 특별히 본문과 관련된 교리설교를 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있는 힘껏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며 다른 설교자와 겹치지 않을 부분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집회에 평신도도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은 경우, 설교자는 “이 게으른 자여!”라고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설교의 수준을 높이고 청교도 사상이 퍼져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딱딱한 말씀을 통해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원래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서 설교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 끊임없는 질문과 문제제기에 목회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청교도 목회자를 모셔서 바른 설교가 가르쳐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청교도 마을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평신도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핵심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설교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묻기도 하고 잘못 설명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설교 수준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물론 정직한 질문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과 포용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저도 제가 수업한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했지만 그 영상을 누군가가 본다는 생각을 하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직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고 계심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질문을 차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성 역시 부정되고 맙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정직한 질문이 종종 차단되기도 합니다.

결국 청년들은 정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세월은 화살과 같이 날아가 어느덧 중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기에 해야 하는 고민을 40, 50대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고민이 크게 늦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대에 그런 고민들을 했다면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귀한 시간들을 얼마나 더 소중한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는 질문하지 못했기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질문하면서 배우는 것은 오래 기억되며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만 공부했기에 학문과 삶은 따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은 삶 그 자체이며 절대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 3. 정직한 질문

#### (1)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평소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사람은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많은 질문들은 정말 필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호기심 역시 바른 방향을 갖지 않으면 쉽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질문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질문을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할 때, 지적 호기심은 충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게 공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질문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화살은 날아가는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에 명중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질문인지 질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서두르지 않는 질문

인간관계는 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질문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부 사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도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거리에 따라 A-B-C-D로 나눈다면 친밀함이 높은 D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을 A단계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질문을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단계도 생각해 보면 나쁜 단계가 아닙니다. 질문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지요. A단계에서도 충분히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질문에 충실할 때, 우리

는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며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위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여유로움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회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모든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누림과 여유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일 자체를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하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쫓기듯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일을 합니다. 차이점은 “서두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도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tempo) 쉬어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3) 이해와 정리를 위한 질문

의사소통의 핵심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이란 늘 왜곡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의 틀에 따라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의도한 대로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전달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한국 학생이 이해는 못하는데 표정은 알아듣는다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원어민 강사는 정말 알아듣는지 테스트를 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에 영어로 “너 이거 정말 알아듣고 있어?”라는 내용을 넣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은 여전히 알아듣겠다는 표정은 짓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냐는 질문에 반응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 소개한 학생은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부끄러워 질문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공부하는 영역과 다른 영역의 내용들을 다룰 때에는 막히는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왜곡을 줄이고 대화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대화한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4. 정직하지 않은 질문

### (1) 성급한 질문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



죽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내용을 신나게 비판했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이 자신이 비판한 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은 조용한 냉소와 함께 닫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와 상담도 상대방의 마음이 닫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람은 빙산과 같이 보이지 않은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감추고 싶어 하는 비밀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담가는 정직하되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룰지라도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 (2) 자아도취형 질문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질문에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정직한 질문은 굳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통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신의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 (3) 인신공격성 질문

비열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기를 좋아합니다. 뻔히 그 이유를 알면서도 상대방의 약점이 생긴 이유를 질문합니다. 인신공격성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가져옵니다. 정직한 질문은 논리의 영역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인신공격성 질문은 논리의 영역을 벗어나 인격의 영역으로 그 범주를 넓힙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인격이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만큼 넘어지기 쉬운 사람도 없습니다. 인신공격성 질문은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 (4) 시험하기 위한 질문

질문을 듣다 보면 상대방을 시험(Test)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단계를 나누어 난이도를 높여 가면서 단계별로 질문합니다.

라브리에 왔던 한 학생 중에 떠나면서 간사님들께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떠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 학생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읽어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책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사님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매우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하

지만 온전히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인격적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느끼는 허탈감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 5. 정직한 질문으로

현대 사회는 경영학적 패러다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선교회, 공동체도 점점 사업(Business)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결과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말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죄인임에도 한 사람은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교만히 자기 의를 말합니다. 세리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일수록 스스로를 비판적(Critical)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진 기독교인들은 무율법적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수치스럽고 아프더라도 참된 회복을 위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호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호수는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금방 정체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을 때, 예전 상태로 유지되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멈추는 순간 뒤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공동체에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질문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지성에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성이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토양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질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직한 질문을 통해 사람과 사람은 공감이라는 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실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할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척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은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6. 정직한 대답을 위한 준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잠수함에 갇혀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한 승무원이 모르스 부호로 보낸 말입니다. 현대인의 질문 역시 위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절망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정직한 대답을 주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을 교리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1) 배우는 마음

정직한 대답을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많은 배움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현상 속에서 바른 진단을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몸의 구조와 병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 문을 닫아 버립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위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보다 높은 자세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지고서는, 절대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배우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어쩌면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 더욱 낮아지기 위해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광대한 우주 속에 작은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겸손해질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C. S. Lewis는 겸손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겸손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력이 통찰력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말하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100번 얻어맞아야 한다면, 101번 102번 얻어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쉐퍼 박사는 “믿음의 빈 손”을 강조합니다. 참된 겸손을 위해서는 “믿음의 빈 손”이라는 바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 끊임 없이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는 마음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아집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의 용어를 빌린다면 자아중심적(egois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면 더 넓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데 자기 자신 속에 갇힌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선의 평가 기준은 “대통(大通), 통(通), 불통(不通)”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문이 깊어질수록 넓게 통하는 인재를 조선사회는 기대하였습니다. 성적의 최하 등급인 “불통(不通)”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고등 학문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널리 통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2) 돕는 마음

돕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돕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집착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들은 가장 명쾌한 대답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지 아닌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놓을 때 얻을 수 있고, 거리를 둘 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돕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성장을 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기심은 항상 이것을 막습니다. 쉐퍼 박사는 타인의 일이 잘 안될 때 스스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급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을 설명합니다. 살다보면 저도 이것을 종종 느낍니다. 저는 상대방이 잘될 때보다 안될 때 은근히 통쾌해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 순간 영적 실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인간은 도구적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냐는 편리성의 입장에서 서로를 착취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계론적 세계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닫힌 체계 속에서 인간은 기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결과(output)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대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존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 아래의 인간(Sub-Human)”이란 개념입니다. 신대륙이나 식민지에서 자행된 끔찍한 학살에는 이런 개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아래의 인간(Sub-Human)은 동물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체스터튼은 원죄의 교리를 통해 왕을 불신하며 동시에 거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긍휼을 실천합니다. 작지만 무서운 차이가 생깁니다.

### (3) 분별력

정직한 대답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일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거나 정말 필요한 질문을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한 학생이 정말 다루어야 할 내용을, 라브리에서 돌아갈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야기했다라면 더 많은 삶의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요. 물론 그 학생은 라브리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돌보았던 간사님들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며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뢰가 깨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장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 여기서 치료할지 아니면 더 큰 병원으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상처를 개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 환상(Rescue Fantasy)속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환상이란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와 동일시하며 문제 해결에 대해 배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직접적으로 구조 환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통해 상대방의 필요를 바르게 찾아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책임감 있는 태도요 지혜입니다.

## 7. 정직한 대답 I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번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통찰력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쉐퍼 박사는 통합점(integration point)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된 통합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영적 생활이 가능하며 마르지 않는 풍부한 생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밖에 통합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돈, 섹스, 권력은 많은 사람들의 통합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중독되어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돈, 섹스,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우리를 파괴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한 명제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전 방위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일상의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브리에 와서 느낀 여유와 평안의 비결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브리가 추구하는 영적 실재의 본질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브리의 삶 속에 전 방위적으로 담겨 있는 이 통찰력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정직한 대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 속에 만 가지의 정직한 대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직한 대답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 8. 정직한 대답 II: 공동체의 삶

배움의 본질은 “어깨너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 중에 책으로 배운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은 책이 아닌 삶으로 배운 것들입니다. 경험적으로 체득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튕겨내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삶의 감화력은 가르치는 내용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라브리에서 사람들이 바뀐 이유 중 하나는 간사님들의 치열한 실천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 우리는 본질(essence)을 배웁니다. 기독교세계관학교에 참여하면 강의도 좋지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섬기는 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장소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섬기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 따뜻함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은 단편적인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쉐퍼 박사의 책을 공부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브리에 오면 올수록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문자 속에 가려졌던 통찰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책만 공부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책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서 나와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9. 정직한 대답 III: 인간은 인격적이며(personal) 유한한(finite) 존재이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	personal	infinite
사람	personal	finite

타락의 본질은 유한한(finite) 인간이 무한한(infinite)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추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때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일을 만들지만 합니다. 오만한 태도가 작은 일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능력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을 가르치려 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적 정보를 가지고 멸망할지도 모르는 길을 상대방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셋째, 겸손을 상실합니다. 겸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인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한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교만한 말을 감히 함부로 내뱉습니다. 겸손의 상실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한한(finite) 속성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치고 피조물로서의 바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격적인(personal) 존재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 “명제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도약이 아닌 명제적 계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신앙의 도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합니다. 두 관계 모두 “소통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성을 전제할 때 누구에게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직설적인 경우 오히려 파괴적입니다. 진리를 칼처럼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진리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다리되 인격적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대화는 하되 설득하지 말 것(dialogue-no-persuasion)을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봐야 공허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받고 스트레스는 풀 수 있겠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삶은 늘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진리를 말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 맺는 말: 진정한 영적 생활, 순간순간의 믿음 (True spirituality, Moment by moment trust)

진정한 영적 생활은 매 순간 역사 속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죽음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매 순간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강물은 다시금 맑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맑은 물들이 수원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맑은 샘물 같은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빈손을 통해 기독교의 실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정직한 질문에 가장 정직한 대답 중에 하나는 순간순간 믿음의 빈손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